

전북도, 혁신도시 악취해소 적극 대응

93개소 주·야간 합동점검... 19개소 적발 등 강력 조치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저녁시간대 바람의 영향으로 악취 등 이종고에 시달리는 혁신도시 주민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발 빠르게 현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예산과 달리 도 관련 살?국과 협업체적 축산시설 밀폐화?탈취시설 설치 및 정보통신기술(ICT) 축산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72억원을 투자하는 등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악취 저감시설 등에 대한 효과 검증 및 불법 건축물 등 위법사항 조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

었다.

그러나, 그간 사업완료 전 까지 매일 시·군과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통해 93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고발 16, 과태료 3)를 적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함은 물론,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 20명이 매일같이 악취발생 유무에 대해 올해 7월말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대비 월 평균 무취일수가 3일 증가했고(12→15일), 유효 악취발생일수 또한 3일 감소(4.8→1.8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기관 및

민·관 협의체운영, 모니터단과의 간담회(총 5회) 추진 등을 통해 도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퇴·액비화시설의 폭기·교반시설로 인해 악취발생이 심해지는 오후시간대(4시 이후) 및 야간에 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했다.

최근 한낮 폭염, 열대야에 이어 저녁시간 대 서풍의 영향으로 잠잠했던 혁신도시 악취 민원이 다시 수면위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전라북도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밀폐화

와 같은 악취저감사업 중 7월에 기착된 축산농가 안개분무시설 설치 사업을 제외한 퇴·액비화 밀폐화 및 탈취시설 설치 사업 등은 입찰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최대한 내년 1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혁신도시 주변 축산시설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단속을 폭염이 지속되는 9월까지 주 2회로 대폭 늘려 주야간 불시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불법행위 등을 엄단하는 한편,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지점에 덮개 설치, 주기적인 미생물계 및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산내면, 세계 희귀종 땀구알버섯 발견

6년 연속 총 16개 자라



남원시 산내면에서는 최근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땀구알 버섯이 6년동안 잇따라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발견은 산내면 입석마을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주지환 농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년보다 늦은 8월 초순경 1개의 땀구알 버섯을 발견했다.

주 씨의 사과 밭에서는 2014년도에 2개, 2015년도에 2개, 2016년에 8개, 2017년에 2개, 2018년에 1개, 2019년에 1개 발견되는 등 최근 6동안 16개의 땀구알 버섯이 발견되어 그 존재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땀구알 버섯은 지

름이 20cm ~ 24cm의 구형으로 축구공 모양과 비슷하며 표면은 백색을 띠고 있으며, *Lanopila nipponica* 라는 학명으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 속, 들판, 풀밭, 잡목림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에서는 성난 말이라는 뜻의 마발로 불리며, 일본에서는 귀신의 머리라는 뜻의 오니후스베로 불리는 땀구알 버섯은 우리나라에서는 눈꽃사탕을 뜻하는 땀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 생활SOC 확충 공모 총력 20개 사업비 1647억원 신청

전북도가 도민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20개 사업 총사업비 1647억원(국비 514, 지방비 1,133)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은 도서관 등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으로 포함하여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20년 추수가 가능한 신규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취지에 맞게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기획·작성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교육·돌봄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돌봄 유형의 생활SOC 사업으로 익산 가족센터, 고창읍 가족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 임실을 행복누리원 등 6개 사업,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체육 유형으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등 4개 사업, 지역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문화 유형으로 정읍 문화복합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을 신청했다. /김진성 기자



모두발언 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사업장에 자제를 요청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도,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 등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징계 면책 신청 기간도 확대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등 우선 기존 징계 면책의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전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감사 현장에서 징계 면책여부를 즉시 결정함으로써 장기간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책 신청기간도 기존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전(통상 감사종료 후 60~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반면에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자”

전북연구원, “출판문화진흥원 지역발전과 연계 필요” 주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한 전북 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국내 출판 산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의 출판 역량을 결합하자는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6일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슈브리핑(2019호)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라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과중 출판산업단지, 경부권의 대구 출판인쇄정보밸리를 잇는 호남권의 전북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및 혁신도시 시종2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북은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중돼 출판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라 할 수 있다. 전북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입지계수는 0.867로 전국 다섯 번째로 높고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을 갖추고 있으며 한지 산업진흥원, 고전번역원, 완판본문화원, 완주 삼례책마을 등 출판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다.

특히 출판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접 관리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업, 보육 기능 및 출판사의 산업 역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출판역사박물관, K-Book AR/VR체험관, 출판교육장, 출판창업보육센터, 북테크 비즈니스센터, 공연장, 북카페 등으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출판역사박물관은 국내의 출판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고, K-Book AR/VR체험관은 한국 출판 관련 콘텐츠를 가상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출판교육장은 출판 종사자 및 예비 출판 창업자의 교육에 활용하며, 출판창업보육센터는 출판 산업 관련 종사자의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 북테크 비즈니스센터는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해 출판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공연장을 통해 북콘서트와 출판 일자리 매칭을, 북카페는 책이길 등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설명이다. /김진성 기자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야반으로 학습합니다.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6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 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라디오 스피치 최고지도사·스피치2강(해소)주	전주, 원주, 김제, 진안, 무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라디오 스피치 최고지도사·스피치2강(해소)주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초·고급) 야간	정읍, 고창
전북대 익산캠퍼스(원생)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야)	익산, 김제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 기법과 리더십(야), 스피치 최고지도사(야)	남원, 순창, 장수, 구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라디오 스피치2강(해소) 최고지도사(야) 웃음치료를	전주, 원주, 진안,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고급 스피치(기법), 스피치 긴장해소(야)	전주, 임실, 원주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면접취업)	전북, 전남, 충남지역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